

코로나19가 가져온 온라인교육, 어르신 세대로 확산

노원노인복지관 TV, 강사·직원·어르신 쌍방소통의 의미있는 시도
코로나 우울증세에서 벗어나 웃음꽃 활짝

온라인 노래교실에서 배우는 트롯 '보랏빛 엽서'

요즘 하루 일과를 거의 집안에서 보내는 박태영(79) 어르신은 복지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재미에 한껏 빠졌다. 2월 중순 복지관 휴관에 따라 외출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기 어려워지자 우울증세 마저 보였던 그가 지난 3월 하순 온라인(카카오톡 복지관 채널)으로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접한 후 “미스터트롯에서 화제가 됐던 노래 보랏빛 엽서를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웃음을 되찾았다. 복지관의 체조 동영상등을 보고 따라하며 생활리듬을 다시 찾았다는 어르신들의 감사댓글도 줄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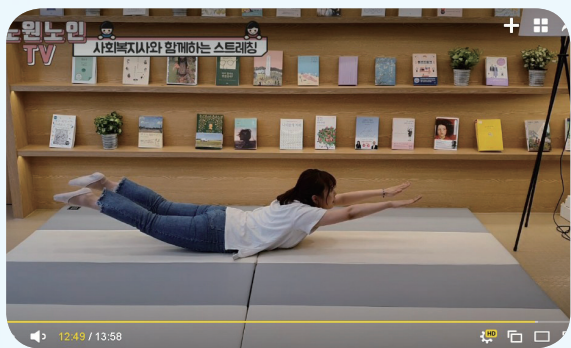
3월 24일 첫 방송

노원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지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휴관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간 준비해온 비대면(언택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3월 24일 첫 방영분을 송출했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자가방역과 신체·정서적 측면에 중점을 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온라인 문화가 어르신 세대까지 구체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강사, 복지관 직원, 어르신 회원 등으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14명의 강사가 진행하는 드럼, 문인화, 바이올린, 오카리나, 노래교실, 영어, 중국어 등 총 20편과 사회복지, 간호, 물리치료 관련 직원들이 참여하는 체조, 건강정보 등 3편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또한 패션, 법률, 음식정보 등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40여종의 각종 정보들을 카카오톡 채널

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교육 참여 유도 후원기관연계

온라인 교육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위해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의 후원으로 댓글달기, 끝말잇기 등의 이벤트를 2회 진행하여 747명의 호응을 이끌었다. 끝말잇기는 4월 22일 ‘청춘의 꿈’을 시작단어로 5월 3일 ‘리어커’를 끝말로 11일간 진행됐다.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한 동질감의 회복은 물론, 모아진 적립금이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인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이벤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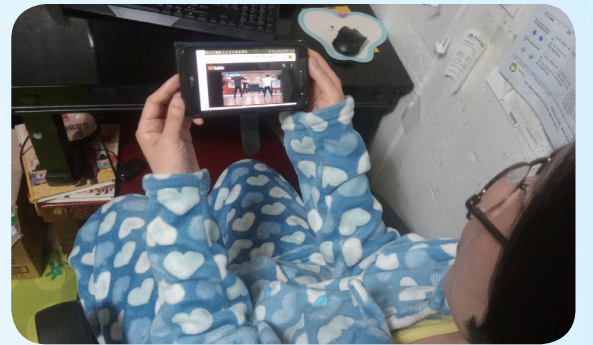
마스크 쓰고 야외 공용와이파이 이용

월계지역에 홀로 사는 권*태 어르신(81)은 바람도 쉴 겸 종종 마스크를 쓰고 광운대역 광장 벤치에 앉아 무료 공용 와이파이로 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을 본다. 코로나 이전에는 복지관 수업일과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온라인 강의는 시간, 요일, 장소와 관계없이 원할 때 마다 볼 수 있어 무척 만족스럽다고 한다.

공릉동 최*곤(82)어르신은 “동영상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집에서 유용하게 볼 수 있어 좋았다. 다만 노인의 시력과 청력을 감안해 음향, 영상 크기 등이 보완됐으면 더 좋았겠다”며 화면을 좀 더 키우는 방법은 없다고 물어보기도 했다. 닉네임 봉우리 어르신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되고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복지관의 노력에 감사할 뿐”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어르신들이 스마트



폰 이용이 서툴고 동영상 재생 시 무료 와이파이가 아닌 유료 모바일 데이터 사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겪는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기 사용법, 강의 참여방법 등의 교육을 강화해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제도적 뒷받침 병행되어야

코로나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일각에서는 올해 가을 더 크게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참에 어르신들의 비대면(언택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보급, 네트워크 수용자인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이동통신 등 각계의 교육 분야 전문가가 지원하는 어르신 콜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일상의 변화는 불편함을 뛰어넘는 새 변혁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층의 배려를 잊지않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작동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